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

李 敬 雨

<차 례>

I. 序 論

II. 統辭範疇을 바꾸는 派生接辭

2.1. 形容詞派生規則

2.2. 動詞派生規則

III. 意味를 바꾸는 派生接辭

3.1. 形容詞派生規則

3.2. 動詞派生規則

IV. 結 論

參考論著

英文要約

I. 序 論

1.1. 本稿는 接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에서 나타나는 意味變化의 記述을 그 目的으로 한다.

形態論은 單語形成과 屈折로 나뉘고, 그 중에서 單語形成은 다시 派生과 複合으로 나뉘어진다. 派生은 몇 가지 類型으로 分類가 되는데, 接辭에 의한 派生語形成과 接辭에 의하지 않는 派生語形成이 그것이다. 接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은 다시 接頭辭에 의한 派生語形成과 接尾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으로 나뉘어지고, 接辭에 의하지 않는 派生은 內的變化에 의한 派生과 零變化에 의한 派生語形成으로 나뉘어진다.¹⁾

接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은 語基에 接辭가 結合되어 새로운 單語가 形成되는데 새로운 單語를 派生시키는 接辭의 機能에는 세 가지가 있다. ‘넓+다랑-’과 같이 統辭論的 範疇의 變化는 일으키지 않고 意味의 添加만을 가져다 주는 接尾辭가 있고, 意味의 變化 뿐만 아니라, ‘꽃+담-, 자비+롭-’과 같이 名詞에서 形容詞로의 統辭論的 範疇에 變化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 또한 ‘먹+히-’와 같이 能動에서 被動으로의, ‘먹+이-’와 같이 主動에서 使動으로의 統辭論的 機能의 變化를 가져다 주는 接尾辭가 있다. 이와 같이 接尾辭가 세 가지의 機能을 하는데 비해 接頭辭는 ‘셋+노랑-’라 같이 意味를 添加시켜 주는 구실밖에 못한다.

1) 派生語形成의 類型에 대해서는 安秉禧(1965), 宋喆巖(1977)를 주로 참조했다.

1.2. 本稿에서는 接尾辭에 의한 派生 중에서 意味變化만 일으키는 派生接尾辭와 統辭範疇까지를 바꾸는 派生接尾辭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用言을 形成하는 派生接尾辭만을 對象으로 했다. 즉, 形容詞派生接尾辭와 動詞派生接尾辭만을 對象으로 하는데 前者의 경우는 先行形態素가 名詞, 動詞, 形容詞인 것에서 形容詞로 派生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고, 後者는 先行形態素가 形容詞, 動詞인 것에서 動詞로 派生되는 경우를 對象으로 했다. 이때 名詞나 副詞(擬聲·擬態語)에서 動詞로 派生되는 경우가 있으나 本稿에서는 除外시켰다. 用言을 形成하는 派生接尾辭의 數가 많이 있으나 全部를 다 다루지 못하고 生産的인 것 중에서 一部를 다루어, 語基의 意味와 接辭가 結合되어 生成된 派生語와의 意味變化의 程度, 派生接辭의 意味特性 및 派生接辭相互間의 關係, 派生接辭가 結合될 수 있는 語基들에 對한 情報抽出 등을 語彙論者의 立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1.3. Chomsky(1965)의 文法 模型에서는 文章과 文章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關係는 變形으로 取扱된다. Chomsky(1965) 文法 模型에서는 語彙部가 設定되어 派生語와 被派生語關係는 語彙部에 있는 派生語規則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chomsky(1970)의 論文에서 派生語 問題를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chomsky는 生成文法의 테두리에 두개의 學派가 있음을 是認하였다. 그 하나가 統辭論者의 立場이며 다른 하나는 語彙論者의 立場이다.²⁾

統辭論者는 낱말은 派生語든 複合語든 간에 原則적으로 特定한 基底構造를 表面的 變種으로 看做하므로, 낱말의 統辭의 意味의 記述을 위해 別途로 特정한 類型의 規則을 設定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統辭部와 意味部를 따로 設定하지 않고, 意味構造가 바로 深層構造가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變形主義者의 模型에는 語彙部가 設定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單語는 意味의 元素로 이루어진 抽象的인 意味構造에서 誘導하게 된다.

이에 반해 語彙論者의 見解는 낱말은 特別한 類型의 規則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統辭規則만으로는 說明이 안되며 別途의 理論的인 再構成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語彙論者의 文法模型에는 語彙部를 뚜렷이 設定하고,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規則은 派生語 規則을 써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語彙論者들은 統辭論者의 見解에서 記述할 수 있는 낱말들도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否認하지는 않는다. 두 見解중 어느것이 妥當한가는

2) Mostch, W. (1977)에 兩者의 立場이 자세히 比較되어 있다.

그들이 重要한 造語事實들을 얼마나 잘 捕捉하는가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Chomsky (1970)는 派生語의 特徵으로 (1) 制限된 生産性과 (2) 派生語 사이에 있는 不規則적이고 特異한 關係를 들었다. 制限된 生産性이란 어떤 경우에는 그에 맞서는 派生語가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없는 것을 뜻한다. 이 事實은 體系的으로 說明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派生語와 派生語의 特異한 關係라는 것은 派生關係에 있는 두 낱말을 比較하여 볼 때 派生語는 統辭的인 面에서나 意味的인 面에서 被派生語로부터 豫測할 수 없는 派生語 特有的 性質을 가지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體系的으로 說明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理由로 派生語는 規則的인 面을 生成하는 統辭部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語彙部에서 取扱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語彙部에는 각 낱말의 統辭的, 音韻的, 意味的 資質이 表示되어 실리게 된다. 각 낱말에 위의 資質을 실을 때에도 豫測할 수 없는 것만 실고 豫測할 수 있는 것은 剩餘規則에 의해서 追加된다. 3) Jackendoff(1975)의 派生規則은 하나의 單語나 또는 單語의 集合을 派生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語彙項이 다른 語彙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情報을 豫見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 4) Jackendoff의 派生規則을 들어 說明해 보자(Jackendoff 1975)

Jackendoff의 派生規則

-ion 名詞과 그것과 關聯된 動詞 사이에 여러가지의 意味論的인 關係가 있고, 같은 意味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의 名詞化語尾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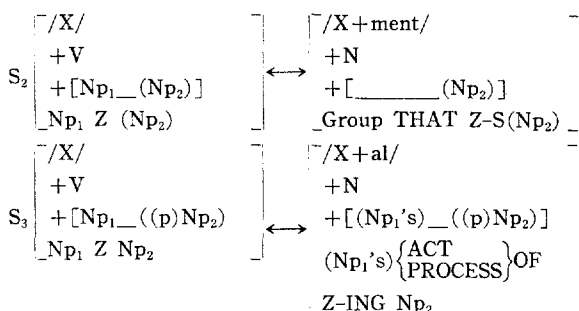
$$(1) \left[\begin{array}{c} /X/ \\ +V \\ S_1 \left[\begin{array}{c} +[NP_1_((p)NP_2)] \\ _NP_1 \ Z \ NP_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c} /X+ion/ \\ +N \\ +[NP_1's_((p)NP_2)] \\ \text{ABSTRACT RESULT OF} \\ \text{ACT OF } NP_1'S \ Z\text{-ING } NP_2_ \end{array} \right]$$

3) 國語의 派生語形成에서 統辭論的인 機能이 바뀌는 被動과 使動에 대해서는 最近 活發히 論議되고 있는데, 統辭論者의 立場에 의한 論文들로는 송석중(1967), 이정민(1973, 1974) 등이 있는데 특히 이기동(1975, 1976 b)에서는 Starosta의 Lexicase Model에 의해서 接辭에 의한 被動詞와 使役動詞에 대한 派生規則을 일부 다루었다.

4) Jackendoff의 派生規則과 類似한 것으로 Chomsky의 剩餘規則이 있는데 chomsky의 剩餘規則은 단지 하나의 주어진 語彙項으로부터 하나의 語彙項을 導出해 낸다.

$$\left[\begin{array}{c} +V \\ +Cause \\ +NP_1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derived \\ +NP_2_NP_1 \end{array} \right]$$

이 規則은 資質 [+Cause]를 가진 自動詞로부터 他動詞를 誘導해 낸다. 그러나 이 規則은 派生語와 被派生語간의 意味的인 關聯性은 나타내지 못한다.



形態論의 意味論의 關係의 Cross-Classification의 例는 다음과 같은 名詞表인데 각 가로 줄은 意味範疇의 名詞를 나타내고 또 각 棟은 같은 形態論的 範疇를 포함한 名詞를 나타낸다.

(1)	M ₁	M ₂	M ₃
S ₁ :	discussion	argument	rebuttal
S ₂ :	congregation	government	
S ₃ :	copulation	establishment	refu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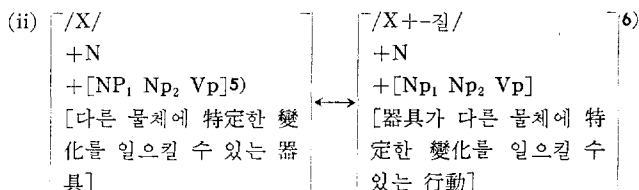
즉 John's discussion of the claim, John's argument against the claim, John's rebuttal of the claim은 意味論의으로 John discussed the claim, John argued against the claim, John rebutted the claim과 각각 S₁의 意味解釋과 下位範疇條件(subcategorization condition)에 의해서 關聯이 된다; the congregation과 the government of Fredonia는 S₂에 의해서 they congregate와 They govern Fredonia와 關係가 있다; John's copulation with Mary와 John established a new order, John refused the offer와 關係가 있다.

이러한 Jackendoff의 派生規則을 써서 國語의 派生語를 考察하기로 한다.

(2) 뜯질, 절구질, 삽질, 곡괭이질, 재봉틀질, 갈퀴질, 체질, 쟁기질

(3) *멍석질, *가마니질

(2)의 例는 '器具가 다른 물체에 特定한 變化를 일으킬 수 있는 行動'을 나타내나 (3)의 '멍석, 가마니'는 다른 물체에 (3)에서와 같은 變化는 주지 못한다. 이것을 派生規則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國語의 單語形成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形態論的인 研究가 계속 되어 왔다.7) 派生語 혹은 複合語에 대한 IC 分析, 즉 形態分析 내지는 構造分析이 행해졌으며 또는 派生接辭들의 資料를 整理하여 그에 의한 派生語의 目錄을 提示하기도 했다. 이러한 構造的인 方法에서 벗어나서 송철의(1977)에서는 일부의 形容詞派生接辭의 意味特性和 名詞派生接辭 相互間의 關係를 다루었다.

本稿에서는 用言을 派生시키는 派生接辭의 意味特性和 派生接辭 相互間의 關係 및 派生接辭가 結合될 수 있는 語基들에 대한 情報抽出 등에 關心을 두고 派生接辭들을 Jackendoff 式의 派生規則을 써서 類型別로 分類하여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意味問題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統辭範疇를 바꾸는 派生接辭

2.1. 形容詞派生規則

2.1.1. -엎-/-브-/-ㅂ-

2.1.1.1 -엎-

接尾辭 ‘-엎-’은 動詞와 形容詞⁸⁾語幹에 結合되며 狀態의 派生法으로 喜怒哀樂과 같은 主觀的이며 心理的인 感情狀態를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安秉禧 1959). 이에 해당하는 派生語는 다음과 같은 ‘動詞→形容詞→

5) 名詞는 文章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모든 位置에 올 수 있으므로 [NP₁ NP₂ Vp]로 表示하기로 한다.

6) Aronoff, M. (1976)의 派生語形成規則에서는 派生語의 意味를 나타내 주는 부분과, 語基에 대한 情報를 나타내주는 부분, 즉 意味에 대한 부분이 Jackendoff의 派生規則에 비해 결여되어 있다.

7) 派生語에 관한 主要한 論著는 다음과 같다.

李崇寧(1961), 安秉禧(1959, 1963, 1971), 金錫得(1966), 金桂坤(1969a, 1969b), 성기철(1969), 高永根(1974), 李翊燮(1975), 許雄(1975).

8) 中世語에서는 접사 ‘-엎-’은 動詞어간에만 연결되었다. (安秉禧, 1971:249) 현대국어에서 形容詞어간에 結合되는 예로는 ‘쉽다→서럽다→서러워한다’ 등이 있다.

動詞'의 因果關係가 이루어진다.

- (1) A類 B類 C類
- 믿 다→미 덜 다→믿어워한다.
- 즐 기 다→즐 겁 다→즐거워한다.
- 반 기 다→반 갑 다→반가와한다.
- 아 끼 다→아 깝 다→아까와한다.
- *뜨 기 다→무 겁 다→무거워한다.
- *붓 그리 다→부 끄럽 다→부끄러워한다.
- *어 즈리 다→어 즈럽 다→어즈러워한다.

위의 例들은 다음과 같은 文章關係가 이루어진다.

- (7) (a. 나는 낚시를 즐긴다.
 b. 나(에게)는 낚시가 즐겁다.
 c. 나는 낚시를 즐겨워한다.
- (8) (a. 나는 옛스승을 반긴다.
 b. 나(에게)는 옛스승이 반갑다.
 c. 나는 옛스승을 반가와한다.
- (9) (a. 나는 시간을 아낀다.
 b. 나(에게)는 시간이 아깝다.
 c. 나는 시간을 아까와한다.
- (10) (a. 나는 그를 믿는다.
 b. 나(에게)는 그가 미덥다.
 c. 나는 그를 믿어워한다.

李翊燮(1978)에서는 (7 b)가 (7 c)에서 變形되어 나오며 이것은 마치 被動文이 能動文에서 變形되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다음의 例에서 나타났듯이 被動文이 能動文에서 變形에 의해 成立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11) (a. 그가 자동차를 몰았다.
 b. *자동차가 그에게 몰렸다.
- (12) (a. 배가 방향을 잡았다.
 b. *방향이 배에게 잡혔다.

위와 같이 (11 a)에서 (11 b)로의 變形이 成立되지 않으며 (12 a)에서 (12 b)로

의 變形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能動文에서 被動文이 유도되는 과정을,

(13) Np_1 가 $-Np_2$ 를 $-V \rightarrow Np_2$ 에게(한테) $-Np_2$ 가 $-Vp$

와 같은 規則으로 일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같은 구조로 본 (7c)가 (7b)로 變形이 된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7c)에서 (7b)가 나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7a)에서 (7b)로의 變形도 能動→被動式의 變形이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7a)와 (7c)는 同意라는 설명이 된다. ‘믿다’와 ‘믿어워하다’가 같은 意味라면 문제가 있다. 물론 ‘믿다’와 ‘믿어워하다’는 動詞이므로 形容詞인 ‘미덥다’ 보다는 어떤 意志가 表現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같은 意味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能動→被動과 같은 方式의 變形이 아니라 (6)의 A類→B類를 다음의 파생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left[\begin{array}{l} /X/ \\ +V, \text{ Adj} \\ +[Np_1(Np_2) \text{ ______}]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text{엿-}/ \\ +\text{Adj} \\ +[Np \text{ } Np+{\text{에게}} \text{ ______}] \\ [\text{感情狀態}] \end{array} \right]$

2.1.1.2. -브-/{-}

‘-브-’는 子音語幹에 ‘-ㅂ-’은 母音語幹에 結合된다. 이것도 ‘-엿-’과 마찬가지로 安秉禧(1971)에서는 喜怒哀樂과 같은 主觀的이며 心理的인 感情狀態를 表示하는 接尾辭로 보았다. 이들도 ‘-엿-’과 같은 式의 ‘動詞→形容詞→動詞’로의 파생관계가 이루어진다.

<-브-類>

- (14) 굶다→고프다→고파한다.
 믿다→미쁘다→미뻐한다.
 앓다→아프다→아파한다.
 *앓다→슬프다→슬퍼한다.
 *깃다→기쁘다→기뻐한다.

<-ㅂ-類>

- (15) 그리다→그립다→그리워한다.
 놀라다→놀랍다→놀라와한다.
 *미다→밋다→미워한다.

위의 예들도 다음과 같은 文章관계가 이루어진다. 먼저 ‘-브-’類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6) a. 나는 배를 뚫는다.
 b. 나는 배가 고프다.
 c. *나에게는 배가 고프다.
 d. *나는 배고파한다.
- (17) a. 나는 가슴을 앓는다.
 b. 나는 가슴이 아프다.
 c. *나에게는 가슴이 아프다.
 d. *나는 가슴을 아파한다.

<-브->類는 (16 c), (17 c)에서 나타나듯이 ‘-업-’에 나타나는 ‘-에게’가 成立되지 않는다. ‘-업-’은 話者 아닌 다른 것을 必要로 하므로 즉 二項動詞類이므로 ‘-에게’가 가능하고 ‘-브-’는 話者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즉 一項動詞類이므로 ‘-에게’가 불가능하다. ‘-ㅂ-’도 二項動詞類이므로 ‘-에게’構文이 가능하다. 그러면 ‘-ㅂ-’類를 살펴보자.

- (18) a. 나는 그를 그린다⁹⁾.
 b. 나(에게)는 그가 그림다.
 c. 나는 그를 그리워한다.
- (19) a. 나는 그 사실에 놀란다.
 b. 나(에게)는 그 사실이 놀랍다.
 c. 나는 그 사실을 놀라와한다.

김영희(1973)에서 주관동사가 시제가 연결되지 않고 서술문의 서술어가 된다면, 주어(정명격 명사어)는 제 1 인칭의 대명사로 대체되는 것이 보통이라 하였다. 3 인칭일 경우에는 파생접사 ‘-업-, -브-, -ㅂ-’에 의한 파생어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살펴보자.

-업-類

- (20) a. 그는 낚시를 즐긴다.
 b. *그(에게)는 낚시가 즐겁다.
 c. 그는 낚시를 즐겨워 한다.
- (21) a. 그는 옛스승을 받긴다.

9) 여기서 ‘그린다’는 ‘慰慕한다’만을 의미한다.

- b. *그(에게)는 옛스승이 반갑다.
- c. 그는 옛스승을 반가와한다.
- (22) a. 그는 시간을 아낀다.
- b. *그(에게)는 시간이 아깝다.
- c. 그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 (23) a. 그녀는 그를 믿는다.
- b. *그녀(에게)는 그가 미덥다.
- c. 그녀는 그를 미더워한다.

(20 b), (21 b), (22 b), (23 b)에서 나타나듯이 ‘-업-’類는 1인칭에서는 가능하나 3인칭에서는 非文이 된다. 感覺(주관)동사의 의미론적인 특징은 話者が 다른 경험주체자의 심리적, 감각적 의식을 판단, 언명할 수 없으므로 3인칭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接辭 ‘-업-에 의한 派生語는 感覺을 나타낸다.

-브-類

- (24) a. 그는 배를 끓는다.
- b. 그는 배가 고포다.
- c. 그는 배고파한다.
- (25) a. 그는 가슴을 앓는다.
- b. 그는 가슴이 아프다.
- c. 그는 가슴을 아파한다.

‘-업-’類는 3인칭이 成立되지 않으나 (24 b), (25 b)에서 나타나듯이 ‘-브-’類는 3인칭이 가능하다. 3인칭인 경우에는 1인칭일 경우와는 意味上的 차이가 있다. (24 b)는 ‘그 사람 요즈음 배고포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다’와 같이 현재 物理的으로는 배가 부를지라도 ‘가난한 처지’를 지칭하게 된다. (25 b)도 ‘그는 가슴(이) 아픈 사람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신체적으로 병이 있다거나 당장은 슬프지 않더라도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3인칭일 경우 ‘-브-’類는 주관동사 즉 感覺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日-類

- (26) a. 그는 교향을 그린다.
- b. *그는 교향이 그림다.
- c. 그는 교향을 그리워한다.

이 ‘-ㄴ-’類도 ‘-읍-’類와 마찬가지로 3인칭은 成立이 안된다. 접사 ‘-ㄴ-’에 의한 파생어도 主觀 또는 感覺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접사 ‘-브-’에 의한 파생어는 3인칭일 경우에는 感覺을 나타내지 못하나 ‘-읍-, -ㄴ-’은 主觀이나 感覺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 3종류의 접사에 의한 파생어 사이에 공통되는 특성이 있다. 3인칭의 회의를문문인 ‘-르까’는 파생 접사 ‘-읍-, -브-, -ㄴ-’에 의한 파생어 모두에 가능하다.

- (27) a. 그는 낚시를 즐길까?
b. 그(에게)는 낚시가 즐거울까?
c. 그는 낚시를 즐겨워할까?
- (28) a. 그는 배를 끓을까?
b. 그는 배가 고픈까?
c. 그는 배고파할까?
- (29) a. 그는 그 사실에 놀랄까?
b. 그(에게)는 그 사실이 놀라울까?
c. 그는 그 사실을 놀라와할까?

또한 回想法의 先語末語尾 ‘-더-’가 ‘-읍-, -브-, -ㄴ-’ 3종류의 접사에 의한 파생어가 사용된 形容詞文에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는 가능하다, 3인칭일 경우는 動詞文만 가능하다.

-읍-類

<1인칭>

- (30) a. *나는 낚시를 즐기더라.
b. 나(에게)는 낚시가 즐겁더라.
c. *나는 낚시를 즐겨워하더라.

<3인칭>

- (31) a. 그는 낚시를 즐기더라.
b. *그(에게)는 낚시가 즐겁더라.
c. 그는 낚시를 즐겨워하더라.

-브-類

<1인칭>

- (32) a. *나는 배를 끓더라.
b. 나는 배가 고프더라.

c. *나는 배고파하더라.

〈3 인칭〉

(33) a. 그는 배를 곯더라.

b. *그는 배가 곯프더라.

c. 그는 배고파하더라.

-ㄴ-類

〈1 인칭〉

(34) a. *나는 고향을 그리더라.

b. 나는 고향이 그리더라.

c.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더라.

〈3 인칭〉

(35) a. 그는 고향을 그리더라.

b. *그는 고향이 그리더라.

c.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더라.

‘-더-’는 어떤 일을 관찰하거나 경험한 일을 남에게 傳達하는 특성이 있고 ‘즐겁더라, 곯프더라, 그리더라’는 內的인 경험이어서 그것이 내것일 때에만 관찰(경험)되는 反面, ‘즐거워하더라, 곯더라, 곯파하더라, 그리더라, 그리워하더라’는 外的인 것이어서 남의 것이어야 관찰이 된다. (李翊燮, 1978 : 69) 安秉禧(1959)에 狀態의 派生法으로 ‘-브-’와 ‘-ㄴ-’을 한 形態素의 異形態로 보았으며 접사 ‘-업-’과 ‘-잡-’을 形態의 類似性으로 같이 다루었는데 ‘-잡-’은 ‘-업-’과는 다른 形態素이며 파생접사 ‘-업-’은 오히려 ‘-브-, -ㄴ-’과 관계가 있다. 파생접사 ‘-브-’와 ‘-ㄴ-’에 의한 파생어 사이에 차이점도 드러나나 파생접사 ‘-업-, -브-, -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그러나 세 派生接辭가 한 形態素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이 세 파생접사에 대해서 (iii)의 파생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iii) \left[\begin{array}{l} /X/ \\ +V, \text{ Adj} \\ +[Np_1(Np_2) \quad ______]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업-, -브-, -ㄴ-/ \\ +Adj \\ +[Np(Np+에게) \quad ______] \\ [感情狀態] \end{array} \right]$$

2.1.2. -스럽-/~답-/~롭-

2.1.2.1 -스럽-

접미사 ‘-스럽-’은 [+Human]인 체언과 [-Human]인 체언에 다 결합될 수 있는데, [+Human]인 體言에 붙을 때는, 좋지 못한 意味의 體言에 결합해서 ‘그와 같이 못났다’는 意味가 된다(宋喆儀, 1977) 이것을 파생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v) \left[\begin{array}{l} /X/ \\ +N \\ +[Np_1 Np_2 Vp] \\ \text{[좋지 못한 意味의]} \\ +Human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스럽-/ \\ +Adj \\ +[Np_1 \underline{\hspace{1cm}}] \\ \text{[X¹⁰]와 같이 못났다} \end{array} \right]$$

派生規則 (iv)에 의하면 ‘학생스럽-, 선생스럽-, 신사스럽-’이 成立 안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11) 基語인 ‘학생, 선생, 신사’는 좋지 못한 意味의 [+Human]이 아니기 때문에 (iv)의 派生規則에 적용이 되지 못하므로 成立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語基가 [+Human]인 경우에 만 해당이 되며 그외의 語基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에 대한 설명은 파생접사 ‘-답-, -롭-’과 비교하면서 살펴 보겠다.

2.1.2.2. -답-

派生接辭 ‘-답-’은 名詞와 結合해서 ‘X의 자격이 있다’ 또는 ‘X의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는 意味를 갖는 形容詞를 파생시킨다(宋喆儀, 1977). 이것을 파생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 \left[\begin{array}{l} /X/ \\ +N \\ +[Np_1 Np_2 Vp] \\ \text{[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 \text{[나타내는 體言]}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답-/ \\ +Adj \\ +[Np_1 \underline{\hspace{1cm}}] \\ \text{[Np}_1 \text{ X의 자격을 가진]} \\ \text{[다]} \end{array} \right]$$

派生規則 (v)에 의하면 ‘거지답-, 바보답-, 병신답-’이 成立 안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基語인 ‘거지, 바보, 병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體言

10) 意味項의 ‘X’는 基語의 意味를 뜻한다.

11) 宋喆儀(1977:30)의 파생규칙에 의하면 $[X] \rightarrow [[X]+스럽]$ Adj 만으로 표시되어 ‘학생스럽- 선생스럽-, 신사스럽-’이 성립 안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되나 (iv)의 派生規則에 의하면 基語에 [좋지 못한 意味의 +Human]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므로 ‘학생스럽-, 선생스럽-, 신사스럽-’이 成立 안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 아니므로 派生規則 (v)에 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¹²⁾

2. 1. 2. 3. -롭-

派生接辭 ‘-롭-’은 名詞, 冠形詞, 혹은 名詞 상당의 語根形態素에 結合해서 形容詞를 派生시키는데, 원래는 ‘-답-’과 ‘-롭-’은 한 形態素의 異形態들이었다(安秉禧, 1959). 그러나 현재는 ‘-답-’은 語基가 母音이나 子音, 어느 것으로 끝나도 다 結合될 수 있으나 ‘-롭-’은 母音으로 끝나는 語基에만 結合된다. 派生接辭 ‘-롭-’과 ‘-답-’에 의한 派生語들이 副詞派生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宋喆儀, 1977: 31) 意味上으로도 차이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는 접사 ‘-롭-’에 의한 파생어가 ‘-답-’에 의한 파생어보다 ‘-스롭-’에 의한 파생어와 意味上으로 더 관련이 있다. 接辭 ‘-스롭-, -답-, -롭-’에 의한 派生語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語基가 [+Human]인 경우

(36) <-스롭->	<-답->	<-롭->
바보스럽다	바보답다(×)	바보롭다(×)
병신스럽다	병신답다(×)	병신롭다(×)
멍청스럽다	멍청답다(×)	멍청롭다(×)
학생스럽다(×)	학생답다	학생롭다(×)
선생스럽다(×)	선생답다	선생롭다(×)
신사스럽다(×)	신사답다	신사롭다(×)
어른스럽다 ¹³⁾	어른답다	어른롭다(×)

2) 語基가 [-Human]인 경우

(37 a) <-스롭->	<-답->	<-롭->
사랑스럽다	사랑답다(×)	사랑롭다(×)
자랑스럽다	자랑답다(×)	자랑롭다(×)
복스럽다	복답다 (×)	복롭다 (×)
원망스럽다	원망답다(×)	원망롭다(×)
번덕스럽다	번덕답다(×)	번덕롭다(×)

12) 沈在箕(1980:71)에 ‘-답-’이 先行名詞의 本性的 內包意味가 背定的으로 評價되었을 때, 즉 ‘꽃다운 꽃, 거지다운 거지’에서처럼 先行要素의 本性的 內包意味가 再歸的으로 쓰일 때에는 언제라도 쓰일 수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13) 宋喆儀(1977:31)에 ‘어른’은 접사 ‘-스롭-’과 ‘-답-’이 둘 다 결합되는 例外的인 것으로 나타나며 ‘-스롭-’이 신분이나 지위 등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에 결합할 때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意味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근심스럽다	근심답다(×)	근심롭다(×)
불안스럽다	불안답다(×)	불안롭다(×)
걱정스럽다	걱정답다(×)	걱정롭다(×)

(37b) 자비스럽다	자비답다(×)	자비롭다
경사스럽다	경사답다(×)	경사롭다
신기스럽다	신기답다(×)	신기롭다
상서스럽다	상서답다(×)	상서롭다
영화스럽다	영화답다(×)	영화롭다
보배스럽다	보배답다(×)	보배롭다
페스럽다	페답다 (×)	페롭다
자유스럽다	자유답다(×)	자유롭다
수고스럽다	수고답다(×)	수고롭다
간사스럽다	간사답다(×)	간사롭다(×)
창피스럽다	창피답다(×)	창피롭다(×)

(37c) 학교스럽다(×)	학교답다	학교롭다(×)
器物스럽다(×)	器物답다	器物롭다(×)
꽃스럽다 (×)	꽃답다	꽃롭다 (×)
情스럽다 (×)	情답다	情롭다 (×)
아름스럽다(×)	아름답다	아름롭다(×)
아릿스럽다(×)	아릿답다	아릿롭다(×)

(37d) 슬기스럽다(×)	슬기답다(×)	슬기롭다
향기스럽다(×)	향기답다(×)	향기롭다
애처스럽다(×)	애처답다(×)	애처롭다
순조스럽다(×)	순조답다(×)	순조롭다
利스럽다 (×)	利답다 (×)	利롭다
가소스럽다(×)	가소답다(×)	가소롭다

語基가 [-Human]인 경우 (37 b)에서와 같이 ‘-스럽-’과 結合하는 語基 중에서 母音으로 끝나는 語基는 ‘-롭-’과도 결합한다. 단, ‘간사, 창피’의 例外가 있다. 語基가 [-Human]인 경우 ‘-스럽-, -롭-’과 結合하는 語基는 [+ABSTRACT]이다. ‘-답-’은 語基가 ‘情, 아름답, 아릿’등 몇 例를 제외하면 語基가 [-ABSTRACT]들이다. ‘-스럽-, -롭-’은 다른 派生接辭와는 다르게 語基와 接辭사이에 ‘도’같은 특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14)(다정도

14) 高永根(1974)에서는 語基와 接辭 사이에 특수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나 굴절 접사가 아니고 파생 접사임이 지적되어 있다.

스럽다, 번덕도 스럽다)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에 의하면 接辭 ‘-롭다’, ‘-스럽다’의 意味는 다음과 같다.

‘-롭다’…주로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러함을 인정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어
 ‘-스럽다’…[명사 아래에 붙어서] 그 명사로 하여금 ‘보기에 그럴만 하다’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만드는 말임.

이와 같이 접사 ‘-롭-’과 ‘-스럽-’이 結合한 派生語는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意味差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자비롭다’와 ‘자비스럽다’의 경우 둘 다 ‘자비’가 있는 경우를 뜻하나 그 이상의 차이는 더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스럽-’과 ‘-답-’은 語基가 [+Human]인 경우 意味面에서 상보적인 접사이다.

‘-스럽-’과 ‘-롭-’이 語基가 [-Human]인 경우를 파생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i) \left[\begin{array}{l} /X/ \\ +N \\ +[Np_1 \ Np_2 \ Vp] \\ [+ABSTRACT]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스럽-, -롭-/ \\ +Adj \\ +[Np_1 \ \underline{\quad}] \\ [X+有] \end{array} \right]$$

2.1.3. -긋-

派生接辭 ‘-긋-’은 名詞와 副詞性 語根과 結合해서 形容詞를 派生시킨다. 접사 ‘-긋-’의 意味는 語基에 結合해서 상태가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접사 ‘-긋-’이 붙는 語基는 ‘-스럽-’과도 結合한다. 그러나 ‘-롭-’과는 結合할 수 없다.

(38) <-긋->	<-스럽->	<-롭->
심술긋다	심술스럽다	심술롭다(×)
암상긋다	암상스럽다	암상롭다(×)
새살긋다	새살스럽다	새살롭다(×)
앙살긋다	앙살스럽다	앙살롭다(×)
앙상긋다	앙상스럽다	앙상롭다(×)
엄살긋다	엄살스럽다	엄살롭다(×)
알망긋다	알망스럽다	알망롭다(×)

애긱다 애스렵다 (×) 애롭다 (×)
 테설긱다 테설스렵다(×) 테설롭다(×)

‘-롭-’과 結合하지 않는 것은 ‘어’를 제외하면 語基가 모두 子音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애, 테설’만 제외하면 ‘-긱-’과 結合하는 語基는 모두 ‘-스렵-’과 結合한다. 접사 ‘-긱-’도 ‘-스렵-’과 마찬가지로 語基와 접사 사이에 특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심술도 긱다, 심술도 스렵다). 그러면 ‘-롭-’과 ‘-스렵-’이 동시에 結合될 수 있는 語基에 접사 ‘-긱-’이 結合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39) <-긱->	<-스렵->	<-롭->
수긱긱다(×)	수긱스렵다	수긱롭다
자비긱다(×)	자비스렵다	자비롭다
경사긱다(×)	경사스렵다	경사롭다
신긱긱다(×)	신긱스렵다	신긱롭다
상서긱다(×)	상서스렵다	상서롭다
영화긱다(×)	영화스렵다	영화롭다
보배긱다(×)	보배스렵다	보배롭다
페긱다 (×)	페스렵다	페롭다

(39)에서 나타나듯이 접사 ‘-긱-’과 結合하는 語基는 좋지 않은 意味의 단어이다. 단, ‘페’가 좋지 않은 意味의 단어이나 ‘페긱다’가 없는 것은 빈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生成이 될 수 있는 단어이다. 접사 ‘-긱-’을 派生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ii) $\neg/X/$ $+N$ $+ [Np_1 \ Np_2 \ Vp]$ [좋지 않은 意味의 體 言]	↔	$[X + -긱-/$ $+Adj$ $+ [Np_1 \ \underline{\hspace{1cm}}]$ [X의 상태가 더 심해 짐]
---	---	--

2.2 動詞派現規則

2.2.1. -추-

접사 ‘-추-’는 動詞, 形容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는 接辭이나 本項에서는 통사법주를 바꾸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形容詞에 結合해서 動詞

가 되는 것만을 다룬다. 그러므로 接辭 ‘-추-’는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통사범주를 바꾸는 것과 意味의 變化만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다. 形容詞에 結合해서 動詞를 만드는 예는 다음과 같다.

낮추— 늦추— 맞추—
 갓추— 끝추— 잣추—

1) 낮다→낮추다

- (40) a. 의자가 낮다.
 b. 의자를 낮추다.
- (41) a. 목소리가 낮다.
 b. 목소리를 낮추다.
- (42) a. 지위가 낮다.
 b. 지위를 낮추다.
- (43) a. 지대가 낮다.
 b. 지대를 낮추다.
- (44) a. 천장이 낮다.
 b. 천장을 낮추다.
- (45) a. 임금이 낮다.
 b. 임금을 낮추다.

基語 ‘낮다’의 意味에서 派生語 ‘낮추다’의 意味 예측이 완전히 가능하며 ‘낮추다’의 意味는 ‘낮게 하다’의 意味이다.

2) 늦다→늦추다

- (46) a. 시간이 늦었다.
 b. 시간을 늦추었다.
- (47) a. 날씨가 늦었다.
 b. 날씨를 늦추었다.
- (48) a. 속도가 늦다.
 b. 속도를 늦추다.
- (49) a. 혼인 날짜가 늦다.
 b. 혼인 날짜를 늦추다.

基語 ‘늦다’의 意味에서 派生語 ‘늦추다’의 意味가 완전히 예측 가능하며 ‘늦추다’는 ‘늦게 하다’의 意味이다.

3) 맞다→맞추다.

- (50) a. 답이 맞다.
b. 답을 맞추다.
- (51) a. 수지가 맞다.
b. 수지를 맞추다.
- (52) a. 발에 꼭 맞는 구두.
b. 발에 꼭 맞춘 구두.
- (53) a. 가로 세로 줄이 맞다.
b. 가로 세로 줄을 맞추다.
- (54) a. 뜻이 맞다.
b. 뜻을 맞추다.
- (55) a. 뚜껑이 꼭 맞다.
b. 뚜껑을 꼭 맞추다.

基語 ‘맞다’의 意味에서 派生語 ‘맞추다’의 意味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며 ‘맞추다’는 ‘맞게 하다’의 意味이다.

‘낫추-, 늦추-, 맞추-’는 基語 ‘낫다, 늦다, 맞다’에서 완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갇추-, 곧추-, 잣추-’는 基語의 意味에서 派生語의 意味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4) 곧다→곧추다.

- (56) a. 이 길은 곧다.
b. *이 길을 곧춘다.
- (57) a. 이 나무는 곧다.
b. *이 나무를 곧춘다.
- (58) a. 그녀는 마음이 곧다.
b. *그녀는 마음을 곧춘다.
- (59) a. 아이가 목이 곧다.
b. 아이가 목을 곧춘다.

‘곧추다’는 ‘곧게 하다’의 意味이긴 하나 문맥제약이 심하다. 1)2)3)의 ‘-추-’, 즉 ‘낫추-, 늦추-, 맞추-’의 ‘-추-’는 ‘-게하다’의 意味이나 機能上으로는 形容詞를 動詞로 만든다. 그러므로 ‘낫추-, 늦추-, 맞추-’는 다음의 파생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viii) \left[\begin{array}{l} /X/ \\ +Adj \\ +[Np_1 \text{ ______}]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추-/ \\ +V \\ +[Np_1 \ Np_2 \text{ ______}] \\ [X+게 하다(使役)] \end{array} \right]$$

지금까지 國語文法에서 ‘-추-’가 붙는 것을 사동보조어간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했으나 위와같이 ‘낮추-, 늦추-, 맛추-’는 (viii)의 派生規則으로 설명이 되므로 ‘-추₁-’으로 보고 그의 ‘갓추-, 곧추-, 잣추-’ 등은 그냥 어휘부에 넣어야 된다.

Ⅲ. 意味를 바꾸는 派生接辭

3. 1. 形容詞派生規則

3. 1. 1 -다랗-/~직하-/~숙하-

3. 1. 1. 1. -다랗-

정도를 나타내는 形容詞에 結合해서 그 뜻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접미사이다(宋喆儀, 1977).

1) 굶다→굶다랗다.

- (60) a. 다리가 굶다.
- b. 다리가 굶다랗다.
- (61) a. 울이 굶은 베
- b. 울이 굶다란 베
- (62) a. 굶게 놀다.
- b. *굶다랗게 놀다.
- (63) a. 굶은 통나무
- b. 굶다란 통나무
- (64) a. 통나무가 굶다.
- b. 통나무가 굶다랗다.

‘굶다랗다’는 ‘무던히 굶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굶은 것의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내는 강조의 뜻이다. ‘-다랗-’은 구체적이며 상태(형체를 가진 것에 쓰임)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62 b)는 추상적인 뜻이므로 成立이 안된다. 또한 형체를 가진 것 중에는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내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2) 길다→기다랗다.

- (65) a. 여우는 꼬리가 길다.
- b. 여우는 꼬리가 기다랗다.

- (66) a. 줄이 길다.
b. 줄이 기다랗다.
(67) a.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기다.
b. *인생은 짧다랗고 예술은 기다랗다.
(68) a. 겨울철은 밤이 낮보다 길다.
b. *겨울철은 밤이 낮보다 기다랗다.

(67 b)와 (68 b)가 成立안되는 이유는 ‘-다랗-’은 구체적인 것에만 쓰이며 상태를 나타내는 접사이기 때문이다.

3) 되다→되다랗다.

- (69) a. 반죽이 되다.
b. 반죽이 되다랗다.
(70) a. 밥이 되다.
b. 밥이 되다랗다.
(71) a. 일이 되다.
b. *일이 되다랗다.
(73) a. 電線을 되게 매다.
b. *電線을 되다랗게 매다.
(73) a. 되게 얇고 나니 눈이 தெ꾼해졌군.
b. *되다랗게 얇고 나니 눈이 தெ꾼해졌군.

(71 b), (72 b), (73 b)가 非文인 것은 ‘-다랗-’이 추상적인 것에는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과생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x)	$\left[\begin{array}{l} /X/ \\ +Adj \\ +[Np_1 \text{ ______}] \\ \text{[정도를 나타내는 형용} \\ \text{사}]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X+-다랗-/ \\ +Adj \\ +[Np_1 \text{ ______}] \\ \text{[Np}_1\text{[+구체성] 무던히, 꽤} \\ \text{×한 상태}] \end{array} \right]$
------	---	---	---

3. 1. 1. 2. -직 하-

形容詞와 形容詞 상당의 語基와 結合한다.

- 15) 과생접사 ‘-직하-, -속하-, -곰하-’는 ‘-직하-’는 ‘-직-’과 ‘-하-’로 ‘-속하-’는 ‘-속-’과 ‘-하-’로 ‘-곰하-’는 ‘-곰-’과 ‘-하-’로 나뉘어 지는데 ‘-직-, -속-, -곰-’은 語基와 結合해서 形容詞가 된다. ‘깊직-, 말쑥-, 달콤-’등이 그 자체로는 하나의 단어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다시 ‘-하-’가 結合되어야 하나의 단어가 되므로 本稿에서는 ‘-직-’과 ‘-하-’가 結合한 ‘-직하-’와 ‘-속-,’과 ‘-하-’가 結合한 ‘-속하-’, ‘-곰-’과 ‘-하-’가 結合한 ‘-곰하-’를 形容詞派生規則에 넣는다.

높직하- 길찍하- 넓직하(널찍하-)
되직하- 깊직하- 묵직하-

1) 높다→높직하다.

- (74) a. 율타리가 높다.
b. 율타리가 높직하다.
(75) a. 물가가 높다.
b. *물가가 높직하다.
(76) a. 기세가 자못 높다.
b. *기세가 자못 높직하다.
(77) a. 지위가 높다.
b. *지위가 높직하다.
(78) a. 소리가 높다.
b. *소리가 높직하다.
(79) a. 연세가 높다.
b. *연세가 높직하다.
(80) a. 천정이 높다.
b. 천정이 높직하다.

(74), (80)의 ‘천정, 율타리’는 구체적인 대상이므로 ‘높직하다’의 표현이 가능하고 (75), (76), (77), (78), (79)의 ‘물가, 기세, 지위, 소리, 연세’ 등은 구체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높직하다’가 쓰이지 못한다.

2) 넓다→널찍하다.

- (81) a. 정원이 넓다.
b. 정원이 널찍하다.
(82) a. 건문이 넓다.
b. *건문이 널찍하다.

‘널찍하다’도 (81)의 ‘정원’은 구체적인 대상이므로 成立이 되나 (82)의 ‘건문’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널찍하다’가 成立되지 못한다. ‘널찍하다’는 강조의 뜻이다.

3) 되다→되직하다.

- (83) a. 반죽이 되다.
b. 반죽이 되직하다.
(84) a. 일이 되다.

b. *일이 되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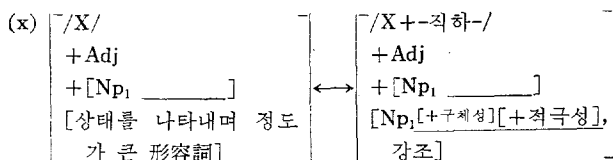
(85) a. 전선(電線)을 되게 매다.

b. *전선(電線)을 되직하게 매다.

‘되직하다’도 구체적인 대상일 경우에말 사용이 된다. 또한 ‘-직하-’가 결합되는 語基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넓직하-	좁직하- (×)
길직하-	짧직하- (×)
굵직하-	가느직하-(×)
되직하-	뭉직하- (×)
깊직하-	얕직하- (×)

‘넓직하-, 길직하-, 굵직하-, 되직하-, 깊직하-’가 成立하는데 비해 ‘좁직하-, 짧직하-, 가느직하-, 뭉직하-, 얕직하-’가 成立하지 못하는 것은 宋喆儀(1977)에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는 形容詞로부터만 名詞가 파생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직하-’ 접미사는 [+적극성]의 意味資質을 가진다. 이것을 派生規則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1. 1. 3. -숙하-

形容詞에 結合한다.

깊숙하- 말숙하-

1) 깊다→깊숙하다.

(87) a. 끝짜기가 깊다.

b. 끝짜기가 깊숙하다.

(88) a. 깊은 산골.

b. 깊숙한 산골.

(89) a. 논바닥이 깊다.

b. 논바닥이 깊숙하다.

(90) a. 정이 깊다.

- b. *정이 깊숙하다.
- (91) a. 밤이 깊었다.
- b. *밤이 깊숙했다.
- (92) a. 학문이 깊다.
- b. *학문이 깊숙하다.

(87), (88), (89)에서 나타나듯이 ‘골짜기, 산골, 논바닥’ 등 구체적인 것은 ‘깊숙하다’가 가능하다. (90), (91), (92)의 ‘情, 밤, 학문’ 등 추상적인 것은 ‘깊숙하다’가 쓰이지 못한다.

2) 맑다→말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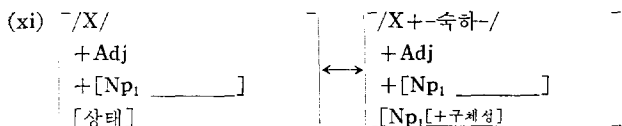
- (93) a. 물이 맑다.
- b. *물이 말쑥하다.
- (94) a. 유리창이 맑게 닦였다.
- b. 유리창이 말쑥하게 닦였다.
- (95) a. 맑은 무소리
- b. *말쑥한 목소리
- (96) a. 맑은 정신
- b. *말쑥한 정신
- (97) a. 옷차림이 맑다.
- ✓ b. 옷차림이 말쑥하다.

‘말쑥하다’도 추상적인 것에는 쓰이지 않는다. ‘말쑥하다’는 ‘맑다’의 강조의 뜻이 아니다. ‘-다랄-, -직하-, -숙하-’가 모두 구체적인 표현에만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세 접사에 의한 파생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8) <-다랄->	<-직하->	<-숙하->
넓다랄다	넌직하다	넌숙하다 (×)
좁다랄다	좁직하다 (×)	좁숙하다 (×)
기다랄다	길직하다	길숙하다 (?)
짧다랄다	짧직하다 (×)	짧숙하다 (?)
높다랄다	높직하다	높숙하다 (×)
굵다랄다	굵직하다	굵숙하다 (×)
가느다랄다	가느직하다 (×)	가느숙하다 (×)
두껍다랄다	두껍직하다 (×)	두껍숙하다 (×)

되다랗다 되직하다 되숙하다 (×)
 길다랗다 길직하다 길숙하다
 맑다랗다 (×) 맑직하다 (×) 맑숙하다

‘-다랗-, -직하-, -숙하-’의 세 접사의 生産性은 ‘-다랗-’이 가장 生産的이며 ‘-숙하-’가 가장 非生産的이다. ‘-직하-’는 정도가 큰 形容詞에만 붙는 경향이 있다. 접사 ‘-숙하-’는 구체적인 것에만 사용이 되며 意味는 명확하지 않다. ‘-직하-’를 파생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2 -곰하-

形容詞 語基에 結合해서 形容詞를 派生시키는 접미사이다.

달콤하- 시금하->새금하-
 말끔하-<벌끔하- 실끔하-

1) 달다→달콤하다.

- (99) a. 수박이 달다.
 b. 수박이 달콤하다.
 (100) a. *단 사랑 이야기
 b. 달콤한 사랑 이야기
 (101) a. 나는 단 수박을 먹는다.
 b. 나는 달콤한 수박을 먹는다.
 (102) a. 너는 단 수박을 먹는다.
 b. ?너는 달콤한 수박을 먹는다.
 (103) a. 그는 단 수박을 먹는다.
 b. ?그는 달콤한 수박을 먹는다.

접사 ‘-다랗-, -직하-, -숙하-’가 구체적인 표현에만 사용되는데 비해서 ‘-곰하-’는 (100 b)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102 b)와 (103 b)에서의 ‘달콤한’의 표현은 話者가 이미 맛을 보아서 ‘달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가능한 표현이나 맛을 보지 않고는 그런 표현이 어색해진다. 그러므로

‘-곰하-’는 話者의 주관이나 心理와 관계가 있다.

2) 맑다→말끔하다.

- (104) a. 물이 맑다.
b. *물이 말끔하다.
- (105) a. 나는 정신이 맑다.
b. 나는 정신이 말끔하다.
- (106) a. 너(그)는 정신이 맑다.
b. *너(그)는 정신이 말끔하다.
- (107) a. 유리창이 맑게 닦였다.
b. 유리창이 말끔하게 닦였다.
- (108) a. 생김새가 맑다.
b. 생김새가 말끔하다.

‘말쭙하다’는 구체적인 표현에만 가능한데 비해 ‘말끔하다’는 (105), (108)의 ‘정신, 생김새’ 등 추상적인 표현에도 사용이 된다. (105 b)에서와 같이 ‘話者 자신의 정신’일 경우는 ‘말끔하다’가 가능하나, (106 b)에서와 같이 2인칭, 3인칭에서는 ‘말끔하다’는 표현이 어색해진다. 즉 話者의 주관이나 心理와 관계가 있다. 接辭 ‘-곰하-’를 파생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ii) \left[\begin{array}{l} /X/ \\ +Adj \\ +[Np_i \quad _____] \\ [상태]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곰하-/ \\ +Adj \\ +[Np_i \quad _____] \\ [話者의 주관, 心理] \end{array} \right]$$

3.1.3. -잡-

파생접사 ‘-잡-’은 形容詞 語幹에 연결되어서 形容詞를 파생시킨다. 中世語에서도 ‘-압-/업-’은 動詞語幹에 結合되나 ‘-잡-’은 形容詞語幹에 結合된다.

넉잡-〈넉- (淺) 맞잡-〈맞- (適)

安秉禧(1971)에 ‘-압/업-’과 ‘-잡-’은 狀態의 派生法으로 喜怒哀樂과 같은 主觀的이며 心理的인 感情狀態를 표시하는 接尾辭로 보았으며 近代語에서 접미사 ‘-잡-’은 소실되고, ‘-압/업-’은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비록 ‘-잡-’이 非生産的인 접사이거나 현대국어의 ‘달갑다, 차갑다’의 ‘-잡-’과 중세국어의 ‘-잡-’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달다→달갑다→달가와한다.

차다→차갑다→차가워한다.

접사 ‘-압/업-’의 ‘즐기다→즐겁다→즐거워한다’ 방식의 意味變化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파생어 ‘달갑다’는 基語 ‘달다’의 意味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때 ‘-갑-’은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아니다.

1) 달다→달갑다.

(109) a. 꿀이 달다.

b. *꿀이 달갑다.

(110) a. 달게 자다.

b. *달갑게 자다.

(111) a. 입맛이 달다.

b. *입맛이 달갑다.

(112) a. *달지 않은 손님.

b. 달갑지 않은 손님.

(113) a. *달지 않은 이야기.

b. 달갑지 않은 이야기.

(114) a. 나는 그의 보복을 달게 받겠다.

b. 나는 그의 보복을 달갑게 받겠다.

‘달갑다’는 基語 ‘달다’의 ‘Sweet’의 意味는 없으며 ‘달갑다’가 쓰이는 (112), (113), (114)에서와 같이 ‘달갑다’의 意味는 ‘마음에 흡족함’을 나타낸다.

2) 차다→차갑다.

‘차다→차갑다’는 ‘달다→달갑다’와는 다른 것 같다.

(115) a. 날씨가 차다.

b. 날씨가 차갑다.

(116) a. 찬 바람.

b. 차가운 바람.

(117) a. 그는 찬 사람이다.

b. 그는 차가운 사람이다.

(118) a. *겨울밤의 찬 달빛.

b. 겨울밤의 차가운 달빛.

(118 a)가 안되는 이유는 달빛이 ‘차갑다’는 것을 느낄 뿐이지 정말 찬지 더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갑-’은 느낌 즉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달갑다’의 ‘-갑-’과 ‘차갑다’의 ‘-갑-’은 다른 것으로서 파생 규칙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각각을 어휘부 속에 넣어야 한다.

3.2 動詞派生規則

3.2.1. -구-

接辭 ‘-구-’는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파생시킨다.

1) 달다→달구다.

- (119) a. 다리미가 달았다.
b. 다리미를 달구었다.
- (120) a. 애가 단다.
b. *애를 달군다.
- (121) a. 수줍어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b. *수줍어서 얼굴을 화끈 달구었다.
- (122) a. *방이 달아서 덥다.
b. 방을 달구어서 덥다.

基語 ‘달다’는 自然的인 現象 즉 非意圖的인 現象이고, 派生語 ‘달구다’는 非自然的인 現象 즉 意圖的인 現象이다. (120 b)의 ‘애’는 自然的인 現象이므로 ‘달구다’가 쓰일 수 없으며 (121 a)의 ‘얼굴이 다는 것’도 自然的인 現象이다. 접사 ‘-구-’는 自然的인 現象을 나타내는 동사에 結合되어 非自然的인 現象을 나타내는 動詞를 파생시키는 접사임이 분명하다.

2) 일다→일구다.

- (123) a. 바람이 일었다.
b. *바람을 일구었다.
- (124) a. 싸움이 일었다.
b. *싸움을 일구었다.
- (125) a. 불이 일었다.
b. *불을 일구었다.
- (126) a. *땅이 일었다.
b. 땅을 일구었다.

‘바람이 이는 것, 싸움이 이는 것, 불이 이는 것’은 自然的인 現象이나

‘땅을 일구는 것’은 非自然的(意圖的)인 現象이다. 그러므로 ‘일다’도 自然的인 現象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派生語 ‘일구다’는 非自然的인 現象(意圖性)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3) 돌다→돌구다.

(127) a. *안경 도수가 돌는다.

b. 안경 도수를 돌구다.

‘안경 도수’는 人爲的으로 즉 意圖的으로 높여야지, 自然的으로 높여질 수가 없으므로 (127 a)는 非文이 된다.

4) 솟다→솟구다.

(128) a. 해가 솟다.

b. *해를 솟구다.

(129) a. 땅이 솟다.

b. *땅을 솟구다.

(130) a. *몸이 솟다.

b. 몸을 솟구다.

‘해, 땅’도 自然物이어서 意圖性이 介入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自然的인 現象을 나타내는 ‘솟다’만이 가능하지 ‘솟구다’는 쓰일 수가 없다. ‘-구-’는 自然的인 現象을 非自然的인 現象으로 만드는 접사이다. 이것을 파생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iii) \left[\begin{array}{l} /X/ \\ +V \\ +[Np_1 \quad \quad] \\ \text{[自然的인 現象]}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구-/ \\ +V \\ +[Np_1 \quad Np_2 \quad \quad] \\ \text{[非自然的인 現象]} \end{array} \right]$$

3. 2. 2. -뜨리-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接辭를 최현배(1937)는 강세보조어간으로 보았다.

1) 떨다→떨어뜨리다.

(131) a. *그는 나는 새를 쏘아 떨었다.

b. 그는 나는 새를 쏘아 떨어뜨렸다.

(132) a. *그가 그 일로 위신은 떨었다.

- b. 그가 그 일로 위신을 떨어뜨렸다.
- (133) a.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었다.
b.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 (134) a. 강도가 부잣집을 떨었다.
b. *강도가 부잣집을 떨어뜨렸다.
- (135) a. 농부가 곡식의 낱알을 떨었다.
b. 농부가 곡식의 낱알을 떨어뜨렸다.
- (136) a. 그가 재털이를 떨었다.
b. 그가 재털이를 떨어뜨렸다.

(135)와 (136)은 基語의 意味와 派生語의 意味가 완전히 바뀐다. ‘떨다’에는 多意性이 있으나 ‘떨어뜨리다’는 基語와는 다른 意味, 즉 ‘아래로 떨어지게 하다’를 뜻한다. ‘-트리-’는 강세의 意味가 아니다.

2) 넘다→넘어뜨리다.

- (137) a. *폭풍이 전주를 넘었다.
b. 폭풍이 전주를 넘어뜨렸다.
- (138) a. 그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었다.
b. *그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어뜨렸다.
- (139) a. 말이 장애물을 넘었다.
b. 말이 장애물을 넘어뜨렸다.
- (140) a. 도둑이 담을 넘었다.
b. 도둑이 담을 넘어뜨렸다.
- (141) a. 영희는 밥상을 넘었다.
b. 영희는 밥상을 넘어뜨렸다.

(139), (140), (141)의 (a)와 (b)는 意味가 전혀 달라진다. (137 b), (139 b), (140 b), (141 b)는 ‘쓰러지게 하다’의 意味가 된다. 이것도 역시 강세의 접미사가 아니다. ‘-트리-’는 ‘基語의 意味+ 게 하다’가 된다. 이에 대한 파생규칙은 다음과 같다.

$$(xiv) \left[\begin{array}{l} /X/ \\ +V \\ +[Np_1(Np_2)______]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트리-/ \\ +V \\ +[Np_1 Np_2 ______] \\ ______[X+ '게 하다'(使役)] \end{array} \right]$$

3. 2. 3. -추-

‘-추-’는 動詞 뿐만 아니라 形容詞와 結合할 수 있는 接辭이나 여기서는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는 경우에만 국한하기로 한다.

1) 들다→들추다.

(142) a. 그 사실을 예로 든다.

b. 그 사실을 예로 들춘다.

(143) a. *지난 일을 자주 들지 말아라.

b. 지난 일을 자주 들추지 말아라.

(144) a. 짐을 든다.

b. 짐을 들춘다.

(144)' a. 짐을 들고 있다.

b. 짐을 들추고 있다.

(145) a. 책을 든다.

b. 책을 들춘다.

(145)' a. 책을 들고 있다.

b. 책을 들추고 있다.

(144 a), (145 a)는 ‘모자를 쓰다’와 마찬가지로 ‘든다’는 ‘들어서 가진 것’ 즉 결과 또는 완료를 나타내며 (144 b), (145 b)의 ‘들추다’는 行動性을 나타낸다. 接辭 ‘-추-’는 動作性을 부여한다. 16) 이것을 派生規則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v) \left[\begin{array}{l} /X/ \\ +V \\ +[NP_1(NP_2)______] \\ [결과, 완료]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추-/ \\ +V \\ +[NP_1(NP_2)______] \\ [동작성] \end{array} \right]$$

3. 2. 4. -닐-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는 接辭이다. 17)

1) 걸다→거닐다.

(146) a. 빨리 걸다.

b. *빨리 거닐다.

16) ‘머물다→멈추다’를 派生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머물다’는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고 ‘멈추다’는 ‘行動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멈추다’가 先行되는 行動이고 ‘머물다’는 後行되는 行爲로서, ‘머물다’와 ‘멈추다’를 각기 별개의 단어로 보아, 本稿에서는 派生관계가 아닌 것으로 다루었다.

17) ‘중세어에서 ‘걸니다’는 ‘걸다’와 ‘니다’의 복합어였다.

- (147) a. 앞으로 걸어라.
b. *앞으로 거닐어라.
- (148) a. 걷는 사람.
b. 거니는 사람.
- (149) a. 걸었던 거리.
b. 거닐었던 거리.

명령에는 ‘거닐다’가 올 수 없다. ‘거닐다’는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빨리, 바쁘게, 열심히’ 등의 부사가 올 수 없다.

2) 놀다→노닐다.

- (150) a.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한다.
b. 일은 안하고 노닐기만 한다.
- (151) a. 일없이 노는 사람이 많다.
b. 일없이 노니는 사람이 많다.
- (152) *(바쁘게, 빨리, 열심히) 노니는 사람이 많다.

‘노닐다’도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빨리,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등의 부사가 올 수 없다. ‘나닐-, 도닐-’도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다. 접사 ‘-닐-’은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派生規則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vi) \left[\begin{array}{l} /X/ \\ +V \\ +[Np_1(Np_2)______] \end{array} \right] \longleftrightarrow \left[\begin{array}{l} /X+-닐-/ \\ +V \\ +[Np_1______] \\ [X+한가하게 움직이는 \\ \text{모양}] \end{array} \right]$$

3. 2. 5. -치-

‘-치-’는 名詞, 形容詞, 副詞,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나 本項에서는 動詞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키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현배(1937)는 강세보조어간으로 보았다.

1) 걸다→걸치다.

- (153) a. *그가 모자를 못에 걸었다.
b. 모자가 못에 걸쳤다.

- c. *그가 모자를 못에 걸쳤다.
- (154) a. *그녀가 빨래를 빨랫줄에 걸었다.
- b. 빨래가 빨랫줄에 걸쳤다.
- c. *그녀가 빨래를 빨랫줄에 걸쳤다.
- (153 b)' 모자가 못에 걸렸다.
- (154 b)' 빨래가 빨랫줄에 걸렸다.

(153 b), (154 b)와 (153 b)', (154 b)'는 動作主가 사람인 경우는 成立이 안 된다. (153 b)', (156 b)'는 被動으로서 '人爲的으로 또는 意圖的으로 걸려진 결과의 상태'일 수 있으나 (153 b), (154 b)는 非意圖的인 우연한 현상을 나타낸다. 이때 '걸치다'는 '걸리다'와는 다르다. 즉 '피동'의 意味만은 아니다.

- (155) a. 계약금을 걸다.
- b. 계약금이 걸리다.
- c. *계약금을 걸치다.
- (156) a. 재판을 걸다.
- b. 재판이 걸리다.
- c. *재판을 걸치다.
- (157) a. 현상금을 걸다.
- b. 현상금이 걸리다.
- c. *현상금을 걸치다.
- (158) a. 희망을 걸다.
- b. 희망이 걸리다.
- c. *희망을 걸치다.

(155 b), (156 b), (157 b), (158 b)에서와 같이 '걸리다'는 成立이 되는 데 (155 c), (156 c), (157 c), (158 c)에서와 같이 '걸치다'는 成立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접사 '-치-'는 被動의 意味는 아니며, '계약금, 재판, 현상금, 희망'이 모두 意圖名詞이므로 (155 a), (156 a), (157 a), (158 a)가 가능하고 (155 c), (156 c), (157 c), (158 c)가 成立이 안 된다.

2) 놓다→놓치다.

- (159) a.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 b. 책을 책상 위의 놓쳤다.
- c. 책이 책상 위에 놓였다.

- (160) a. 붓을 놓았다.
 b. 붓을 놓쳤다.
 c. 붓이 놓였다.
- (161) a. 충을 놓았다.
 b. 충을 놓쳤다.
 c. 충이 놓였다.
- (162) a. 주판을 놓다.
 b. 주판을 놓치다.
 c. 주판이 놓였다.
- (163) a. 그는 교편을 놓았다.
 b. 그는 교편을 놓쳤다.
 c. ?교편이 그에 의해서 놓였다.

(159 c), (160 c), (161 c), (162 c), (163 c)는 被動의 意味이나 (159 b), (160 b), (161 b), (162 b), (163 b)는 被動의 意味는 아니다. 즉 非意圖的인 行爲를 뜻한다. 이에 반하여 (159 a), (160 a), (161 a), (162 a), (163 a)는 意圖的인 行爲를 뜻한다. (160 a)는 ‘~에’라는 처소와 같이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글쓰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意味이고 (160 b)의 ‘떨어뜨리다’는 非意圖的인 行爲를 나타내며 (161 a)는 ‘항복’의 뜻이고 (161 b)도 ‘떨어뜨리다’는 非意圖的인 行爲를 뜻한다. (162 a)도 ‘계산하다’는 뜻이고, (162 b)의 ‘떨어뜨리다’는 非意圖的인 行爲를 뜻한다. (163 a)도 ‘그만두다’는 뜻이고 (163 b)는 ‘박탈당하다’는 뜻으로 ‘그의 意圖’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 (164) a. 퇴짜를 놓다.
 b. *퇴짜를 놓치다.
- (165) a. 횡방을 놓다.
 b. *횡방을 놓치다.
- (166) a. 속력을 놓다.
 b. *속력을 놓치다.
- (167) a. 전기를 놓다.
 b. *전기를 놓치다.
- (168) a. 철교를 놓다.
 b. *철교를 놓치다.
- (169) a. *기회를 놓았다.

- b. 기회를 놓쳤다.
 (170) a. *기차를 놓았다.
 b. 기차를 놓쳤다.

(164), (165), (166), (167), (168)의 ‘퇴짜, 궤방, 속력, 전기, 철교’는 意圖名詞이므로 非意圖의인 行爲에 쓰이는 ‘놓치다’가 쓰일 수 없고 ‘기회, 기차’는 非意圖名詞이므로 意圖의인 行爲에 쓰이는 ‘놓다’가 쓰일 수 없다. 基語 ‘놓다’는 意圖의인 行爲에 쓰이고 派生語 ‘놓치다’는 非意圖의인 行爲에 쓰인다. 접사 ‘-치-는’ 基語의 意圖性을 박탈하는 데에 쓰인다. 基語 ‘놓다’에서 파생된 파생어 ‘놓치다’의 意味는 ‘떨어뜨리다, 잃어버리다’ 등으로 意味가 완전히 바뀐다.

3) 덮다→덮치다.

- (171) a. 그는 이불을 덮었다.
 b. *그는 이불을 덮쳤다.
 (172) a. 그는 책을 덮었다.
 b. *그는 책을 덮쳤다.

(171 a), (172 a)가 文章이 成立되는데 비해 (171 b), (172 b)가 非文이 되는 것으로 ‘덮치다’는 ‘덮다’의 단순한 강세의 뜻은 아니다.

- (173) a. *매가 닭을 덮는다.
 b. 매가 닭을 덮친다.
 (174) a. *뜻하지 않은 재난이 그들을 덮었다.
 b. 뜻하지 않은 재난이 그들을 덮쳤다.
 (175) a. 산사태가 집을 덮었다.
 b. 산사태가 집을 덮쳤다.
 (176) a. 눈이 집을 덮었다.
 b. 눈사태가 집을 덮쳤다.
 (177) *행운의 여신이 그들을 덮쳤다.
 (178) 경사가 접쳤다.

(173)의 ‘매’나 (175)의 ‘산사태’나 (176)의 ‘눈’은 人間의 意志 또는 意圖와는 관계없는 自然現象이므로 ‘덮다’와 ‘덮치다’가 둘 다 가능하다. ‘덮치다’는 目的語의 위치에 오는 것 즉 덮치는 대상의 立場에서 보면 모두 좋지 않은 일일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 그것은 (173 b), (174 b), (175 b),

(176 b)에서 나타나며 (177)이 非文이 되는 데서 확실하다. 本項에서는 動詞 語基에 접사 ‘-치-’가 結合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덮치다’의 用例를 살피는 것이므로 (178)의 名詞 ‘겹’에 접사 ‘-치-’가 結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다음의 例文을 보면 ‘덮치다’는 前項의 ‘걸다→걸치다, 놓다→놓치다’와는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179) a. *산적떼가 뒤에서 그들을 덮었다.
b. 산적떼가 뒤에서 그들을 덮쳤다.

(179)에서 나타나듯이, ‘덮치다’는 意圖, 非意圖와는 관계없이 ‘덮치다’의 對象이 불행한 일일 경우에 해당되며, ‘덮치다’의 뜻은 行爲의 主體에서 보면 ‘공격하다, 기습하다’는 뜻이고 목적어의 위치에 오는 것, 즉 對象은 나쁜 일을 당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덮치다’는 基語 ‘덮다’의 意味에서 변이되어 독자적인 意味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例는 다음의 ‘뿌리다→뿌리치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뿌리다→뿌리치다.

- (180) a. 그녀가 정원에 물을 뿌린다.
b. *그녀가 정원에 물을 뿌리친다.
(181) a. 농부가 씨를 뿌린다.
b. *농부가 씨를 뿌리친다.
(182) a. 술집에 뿌린 돈
b. *술집에 뿌리친 돈
(183) a. *말려도 뿌리고 떠난 사람
b. 말려도 뿌리치고 떠난 사람
(184) a. *그녀는 손목을 뿌렸다.
b. 그녀는 손목을 뿌리쳤다.
(185) a. *그는 장관의 자리를 뿌렸다.
b. 그는 장관의 자리를 뿌리쳤다.

(183), (184), (185)에서 나타나듯이 ‘뿌리치다’는 基語 ‘뿌리다’의 意味와는 전혀 달리 ‘거부(拒否)’의 의미로 고정된 例이다.

5) 넘다→넘치다.

- (186) a. 쌀이 한 말이 넘는다.

- b. 쌀이 한 말이 넘친다.
- (187) a. 물이 넘는다.
b. 물이 넘친다.
- (188) a. *분수에 넘는다.
b. 분수에 넘친다.
- (189) a. *그녀는 기쁨에 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b. 그녀는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 (190) a. 그들은 산을 넘었다.
b. *그들은 산을 넘쳤다.
- (191) a. 점심때가 넘었다.
b. *점심때가 넘쳤다.
- (192) a. 그들은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다.
b. *그들은 헤어진 지 10년이 넘쳤다.
- (193) a. 군대가 국경을 넘었다.
b. *군대가 국경을 넘쳤다.

접사 ‘-치-’는 강세의 의미도 아니며 피동, 사동도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기준이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意味한다. (186 b), (187 b), (188 b), (189 b)가 成立이 되는데 비해서 (190 b), (191 b), (192 b), (193 b)가 非文이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걸다→걸치다, 놓다→놓치다’와 같이 ‘-치-’가 非意圖性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덜치다’는 목적어의 위치에 오는 것, 즉 ‘대상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경우에 해당이 되며, ‘뿌리치다’는 ‘拒否’의 뜻으로 굳어졌고, ‘넘치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意味한다. 이렇듯 접사 ‘-치-’의 意味는 어떤 規則性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강조’의 意味가 아님은 확실하다. 18) ‘걸치다, 놓치다’의 ‘-치-’가 非意圖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예를 아직 찾지 못했고 反例도 있어서 科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각각을 다 어휘부에 넣는다.

Ⅳ. 結 論

國語의 派生語形成의 類型에는 4 가지가 있는데, 一般的인 것으로는 接頭

18) ‘밀다→밀치다’에서 ‘밀치다’가 ‘밀다’의 강조의 뜻 같으나 실제로 ‘밀치다’는 ‘밀어서 제치다’의 뜻으로 ‘밀다’의 강조는 아니다.

辭나 接尾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이 있고, 特殊한 것으로는 內的變化에 의한 派生語形成과 零變化에 의한 派生語形成이 있다. 一般的인 接辭에 의한 派生語形成에서 接頭辭는 意味의 添加만을 가져다 주는데 비해서 接尾辭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한다.

1) ‘넙+다랑-’과 같이 統辭論的 範疇의 變化는 일으키지 않고 意味의 添加만을 가져다 주는 것,

2) ‘꽃+답-, 자비+롭-’과 같이 意味의 變化 뿐만 아니라 統辭論的 範疇에 變化를 가져다 주는 것,

3) 또한, ‘먹+히-’와 같이 能動에서 被動으로의, ‘먹+이-’와 같이 主動에서 使動으로의 統辭論的 機能의 變化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

本稿에서는 1), 2)項에 해당하는 接辭중에서도, 用言을 形成하는 派生接尾辭를 다루었으며, 接辭의 意味가 規則적이고 豫測이 可能한 것은 Jackendoff 式的 派生規則으로 나타내었고 意味가 不規則인 것은 語彙部에 넣어서 分類했다.

派生規則으로 說明이 可能한 것으로는 統辭範疇를 바꾸는 派生接辭중에서, 形容詞派生規則은 다음과 같다.

1. 規則(iii)의 ‘-넙-/-브-/-되-’으로 中世語에서 接辭 ‘-브-’는 子音語幹에 結合되고, ‘-되-’은 母音語幹에 結合되는 한 形態素의 異形態이며, ‘接辭 ‘-넙-’은 ‘-브-/-되-’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接辭 ‘-넙-’과 ‘-되-’에 의한 派生語는 二項動詞類이므로 ‘-에게’構文이 可能하고, 接辭 ‘-브-’에 의한 派生語는 一項動詞類이므로 ‘-에게’構文이 不可能하다. 또한 接辭 ‘-넙-’과 ‘-되-’에 의한 派生語는 3人稱主語에서는 使用되지 않으므로 感覺動詞類이나, 接辭 ‘-브-’에 의한 派生語는 3人稱 主語에서 使用되므로 感覺動詞類가 아니다.

2. 規則(iv), (v), (vi)의 ‘-스럽-/-답-/-롭-’으로 接辭 ‘-스럽-’, ‘-답-’은 [+Human]과 結合할 때는 規則(iv)와 (v)에 의하면 ‘學生스럽-, 先生스럽-, 신사스럽-’이 成立안되는 것과, ‘거지답-, 바보답-, 병신답-’이 成立 안되는 것이 說明이 된다. 語基가 [-Human]인 경우에는 接辭 ‘-스럽-’, ‘-롭-’과 結合하는 語基는 [+ABSTRACT]가 되고, 接辭 ‘-답-’과 結合하는 語基는 몇 例를 除外하면 [-ABSTRACT]가 된다.

3. 規則(vii)의 ‘-긋-’으로 接辭 ‘-긋-’과 結合하는 語基는 거의 接辭 ‘-스럽-’과 結合하며 ‘-긋-’과 結合하는 語基는 좋지 않은 意味의 단어들이다. ‘接辭 ‘-긋-’, ‘-스럽-’과 結合하는 派生語는 語基와 接辭 사이에 特殊

助詞가 들어갈 수 있어, 다른 接辭에 비해 分理性이 있다.

動詞派生規則은 다음과 같다.

4. 規則 (viii)의 ‘-추-’로 ‘낫추-, 늦추-, 맞추-’가 해당이 된다. 이때 接辭 ‘-추-’는 基語의 意味에서 派生語의 意味가 完全히 豫測이 可能한 것으로 接辭 ‘-추-’의 意味는 ‘-게 하다(使役)’의 意味이다.

意味를 바꾸는 派生接辭 중에서 形容詞派生規則은 다음과 같다.

5. 規則 (ix), (x), (xi)의 ‘-다랗-, -직하-, -숙하-’로 接辭 ‘-다랗-, -직하-, -숙하-’에 의한 派生語는 모두 具體的인 對象의 表現에만 可能하며, 세 接辭의 生産性은 ‘-다랗-’ > ‘-직하-’ > ‘-숙하-’의 順序이며, 接辭 ‘-직하-’와 結合하는 語基는 ‘널찍하-’는 存在하는데 비해 ‘좁찍하-’는 存在하지 않는 등 정도가 큰 形容詞들이다.

動詞派生規則으로는 다음과 같다.

6. 規則 (xii)의 ‘-곰하-’로 接辭 ‘-다랗-, -직하-, -숙하-’는 具體的인 表現에만 可能한데 비해서 ‘-곰하-’는 抽象的인 表現에도 使用된다. ‘-곰하-’에 의한 派生語는 話者의 主觀이나 心理와 關係가 있다.

7. 規則 (xiii)의 ‘-구-’로 接辭 ‘-구-’와 結合하는 派生語는 非自然的인 現象을 나타낸다. 接辭 ‘-구-’는 基語의 自然性을 非自然性으로 바꾼다.

8. 規則 (xiv)의 ‘-뜨리-’로 최현배(1937)는 강세보조어간으로 다루었으나 강세의 意味는 아니고 ‘-게 하다’라는 使役의 意味이다.

9. 規則 (xv)의 ‘-추-’로 接辭 ‘-추-’는 動詞의 語基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하는 경우는 非生産的이다. ‘들다’에 接辭 ‘-추-’가 結合해서 ‘들추다’가 될 경우 ‘들다’에도 動作性이 없는 것은 아니나 ‘모자를 쓰다’와 마찬가지로 ‘들다’는 ‘들어서 가지는 것’, 즉 結果나 完了를 나타내며, ‘들추다’는 動作性을 나타낸다.

10. 規則 (xvi)의 ‘-닐-’로 派生接辭 ‘-닐-’은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빨리,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등의 副詞와 함께 쓰일 수 없다.

語彙部에 들어갈 것은 統辭範疇를 바꾸는 派生接辭 중에서 動辭派生接辭의 ‘-추-’로, ‘갓추-, 곧추-, 잣추-’가 해당이 된다. ‘갓다, 곧다, 잣다’와 結合한 接辭 ‘-추-’의 意味도 ‘-게 하다’의 使役의 뜻이기는 하나 派生語의 文脈制約이 심하고 基語의 意味에서 派生語의 意味가 完全히 豫測이 可能하지 않으므로 各各을 그대로 語彙部에 넣는다.

意味를 바꾸는 派生接辭로는 形容詞派生接辭의 ‘-갑-’이 있다. 接辭 ‘-갑-’

은 ‘-업-’과는 意味上으로 아주 다른 것으로 派生語 ‘달갑다’, ‘차갑다’에서 ‘달갑다’의 ‘-갑-’의 意味가 ‘마음에 흡족함’을 나타내고, ‘차갑다’의 ‘-갑-’은 ‘느낌 즉 狀態’를 나타내므로 接辭 ‘-갑-’은 意味의인 共通性이 없으므로 各各을 語彙部에 넣는다. 또한 動詞派生接辭로는 ‘-치-’가 있다. 接辭 ‘-치-’를 최현배(1937)는 강세보조어간으로 다루었으나 動詞 語基와 結合해서 動詞를 派生시킬 경우에는 ‘강세’의 意味는 아니다. ‘걸다→걸치다, 놓다→놓치다’의 경우 接辭 ‘-치-’에 의한 派生語는 非意圖性을 나타내는 듯하나 ‘누더기를 몸에 걸치다’라는 反例가 나타나며, ‘덮다→덮치다’의 경우는 派生語 ‘덮치다’는 對象의 立場에서는 항상 나쁜 일을 당하는 意味가 된다. ‘뿌리다→뿌리치다’의 경우도 接辭 ‘-치-’와 結合한 派生語 ‘뿌리치다’의 意味는 ‘거부(拒否)’의 意味로만 쓰이게 되었다. ‘넘다→넘치다’에서 派生語 ‘넘치다’는 ‘어떤 基準이나 程度를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이와같이 接辭 ‘-치-’의 意味는 어떤 規則性을 찾을 수가 없고 多樣하게 變化해서 各各을 다 語彙部에 넣는다.

本稿에서는 用言을 形成하는 接辭를 全般的으로 다 다루지 못했으며, 意味資質의 精密化에 의한 基語의 意味資質들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보다 明確한 派生規則의 補完이 要望된다.

參 考 論 著

- 高永根(1974), 國語接尾辭研究, 百合出版社
- 金桂坤(1969 a), 현대국어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전, 한글 144
- (1969 b), 현대국어 조어법 연구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仁川敎大論文集 4
- 金錫得(1966), 國語形態論, 延世論叢 4
- 김영희(1973), 한국어의 주관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4
- 서정수(1978), 국어구문론연구, 塔出版社
- 成耆徹(1969), 名詞의 形態論의 構造, 國語敎育 15
- 沈在箕(1980), 動詞化의 意味機能, 韓國文化 1
-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研究, 國語研究 7
- (1965), “文法論” 國語學概說, 首都出版社
- (1971), “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宋喆儀(1977),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 이기동(1975), Lexical Causatives in Korean, 語學研究 11-1

——(1976 a), Arguments against Lexicalization with Reference to Deadjectival Causatives in Korean, 언어 1-1

——(1976 b), 韓國語被動形分析의 檢討, 人文科學論叢 9 (건국대)

李崇寧(1961), 國語造語論考, 乙酉文化社

李羽燮(1968), 漢字語造語法的 類型,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1975), 國語造語論의 몇 문제, 東洋學 5

——(1978), 被動性形容詞文의 統辭構造, 國語學 6

이정민(1973), Presupposition of theme for Verbs of change (in Korean and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9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법한서적 주식회사,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 1973)

崔鉉培(1975, 初版 1937), 우리말본, 정음사

許 雄(1966), 西紀 15 世紀 國語를 대상으로 한 造語法的 敘述方法과 몇가지 問題點, 東亞文化 6

——(1975), 우리옛말본, 샘文化社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Bierwisch, M. (1976), "Syntactic features in Morphology: General Problems of so-called Pronominal Inflection in German" in to Honor Roman Jakobson, The Hague: Mouton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1965),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A. Jackobs and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5), Morphological and Semantic Regularities in the Lexicon, Language 51 No. 3

Leech, J. (1974), Semantics, Great Britain, Hazell Watson and Viney

Lyons, J. C.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Motsch, W. (1977), Ein Plädoyer für die Beschreibung von Wortbildungen auf der Grundlage des Lexikons, Bonn-Bouvier Verlag Herbert Grundmann

Roeper, T. and E. A. Siegel (1978), A Lexik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No. 2

ABSTRACT

Meaning change of Word-Formation

Kyung Woo Lee

There are four types of Word-formation in Korean. In general there are Word-formation by attaching Prefix or Suffix and in particular there are Internal change and Zero Modification. The function of prefix is only to add to meaning to a basic word. The function of suffix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 1) The first one is to change meaning only as in ‘넓+다랗-’.
- 2) The second one is to change not only meaning but syntactic category as in ‘꽃+답-, 자비+롭-’.
- 3) The last one is to change syntactic function eg. active to passive or active to causative.

In this thesis the first and the second function of suffix to form verbs and adjectives are treated. when the meaning of derivational suffix is regular, it is treated by derivational rule. When the meaning of derivational suffix is irregular, it is included in the lexicon.

Those which can be treated by derivational rules are adjective derivational rules among the derivational suffixes which change the syntactic category.

1. Derivational suffixes ‘-엿-/-브-/-ㅁ-’ are explained by rule (iii).
2. Derivational suffixes ‘-스럽-/-답-/-롭-’ are explained by rule (iv), (v) and (vi).
3. Derivational suffix ‘-웃-’ is explained by rule (vii).

The one which can be treated by derivational rule is verb derivational rule among the derivational suffixes which change the syntactic category.

4. Derivational suffix ‘-추-’ is explained by rule (viii) as in ‘낮추-, 늦추-, 맛추-’.

Those which can be treated by derivational rules are adjective derivational rules among the derivational suffixes which change the meaning.

5. Derivational suffixes ‘-다랗-/-직하-/-숙하-’ are explained by rule (ix), (x) and (xi).
6. Derivational suffix ‘-곰하-’ is explained by rule (xii).

Those which can be treated by derivational rules are verb derivational rules

among the derivational suffixes which change the meaning.

7. Derivational suffix ‘-기-’ is explained by rule (xiii).

8. Derivational suffix ‘-뜨리-’ is explained by rule (xiv).

9. Derivational suffix ‘-추-’ is explained by rule (xv).

10. Derivational suffix ‘-닐-’ is explained by rule (xvi).

The derivational suffix ‘-추-’ as in ‘갖추-, 끝추-, 잣추-’ is included in the lexicon is verb derivational suffix which change the syntactic category. The derivational suffix ‘-잡-’ is included in the lexicon is adjective derivational suffix which change the meaning. The derivational suffix ‘-엮-’ is included in the lexicon is verb derivational suffix which change the meaning. In this thesis derivational suffixes which form verbs and adjectives are not treated entirely and the modification of more definite derivational rules by minuteness of semantic features are required.